

# 불가리아의 농업 현황 및 정책 \*

김 대 홍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1. 서론

우리에게 장미와 요구르트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는 불가리아는 지리적으로 동남 부유럽 발칸반도 동쪽 끝자락에 위치하여 루마니아, 세르비아,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흑해를 마주하고 있다<그림 1참조>. 오래전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알려진 발칸지역에서 국가를 건국한 불가리아(AD681년, 불가리아 제1제국)는 전통적인 농업국가로서 유럽의 식량창고라 불리기도 하였다).

한국과 불가리아의 농업분야 교류협력은 1990년 외교관계 수립이후 한국 농촌진흥청과 불가리아 농업연구기관 간의 기술협력이 시작되기 전까지 미미하였다. 농촌진흥청은 불가리아 농업생물연구소(05) 및 식물유전자연구소(06)와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협력을 도모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 불가리아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설치를 추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농업분야 상호협력을 모색하

\* (dhkim@kdi.re.kr). 본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에서 2000년에 발간한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Bulgaria"와 최용호, "루마니아 현황과 시사점", 『세계농업』, 177호(2015), p.75-102.를 참고하여 작성함.

1) KOTRA 국가정보(2014).

였으나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무산되었다. 이외에도 2008년부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과 불가리아 플로브디프(Plovdiv) 농업대학 간 농업 및 생명분야 연구협력이 이루어졌으나 업무협약기간이 2013년에 공식 만료됨에 따라 양국 간의 농업분야 교류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sup>2)</sup>

2015년 한-불가리아와 수교 25주년의 해를 맞아 불가리아 대통령이 공식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를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농업분야를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국방, ICT, 과학기술 등에 거쳐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하면서 다시금 양국 간 농업협력을 이어나갈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불가리아는 특히 우수한 농업 인프라가 구축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 비교적 관세율이 낮아 농업개발투자 및 기술협력에 있어 그 잠재력이 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불가리아의 주요 정치·경제 현황과 함께 농업현황 및 주요 농업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불가리아 농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림 1 불가리아 지도



자료: 브레태니커 온라인([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0b1649b](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0b1649b)).

2) 주 불가리아 한국 대사관(<http://bgr.mofa.go.kr/korean/eu/bgr/policy/condition/index.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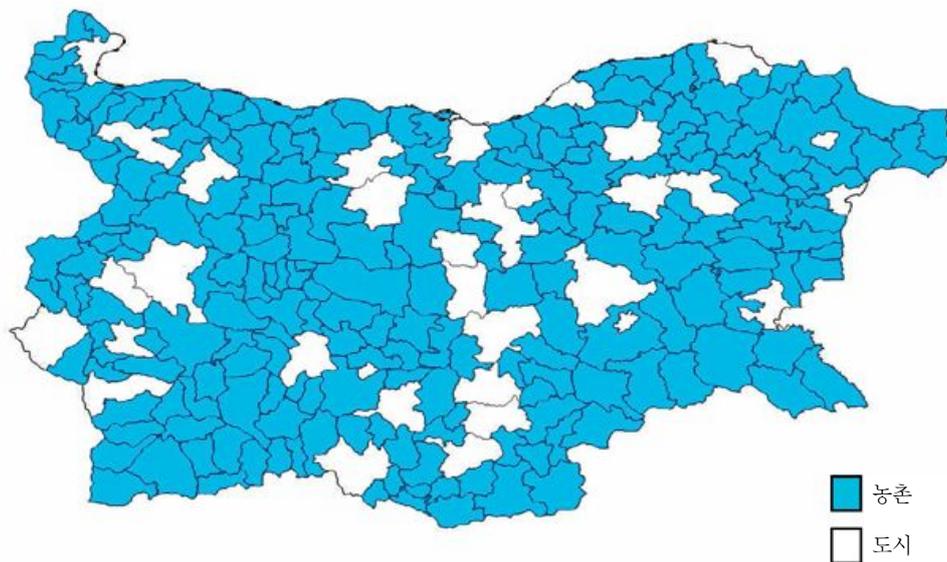
## 2. 불가리아의 국가개황

불가리아는 지난 반세기 동안 1989년 공산정권 붕괴와 민주화, 1990년대 체제전환, 그리고 2007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이하 EU로 약칭) 가입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해 왔다. 불가리아의 농업현황 및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불가리아의 정치·경제적 현황을 알아보려고 한다.

### 2.1. 일반연앙

불가리아 면적은 한반도의 약 1/2의 크기(11만 993km<sup>2</sup>)로 유럽에서는 14번째, 세계에서 101번째 규모이다. 2016년 1월에 추산된 불가리아의 인구는 709만 명이며,<sup>3)</sup> 인구밀도는 km<sup>2</sup>당 65명이고, 성비는 1.0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많다.<sup>4)</sup> 불가리아 전체인구의 약 1/6(115만 명)이 수도 소피아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외에 주요도시인 플로브디프(Plobodiv) 34만 명, 바르나(Varna) 31만 명, 부르가스(Burgas) 19만 명 등으로 인구의 약 70%가 도심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림 2 불가리아 농촌 및 도시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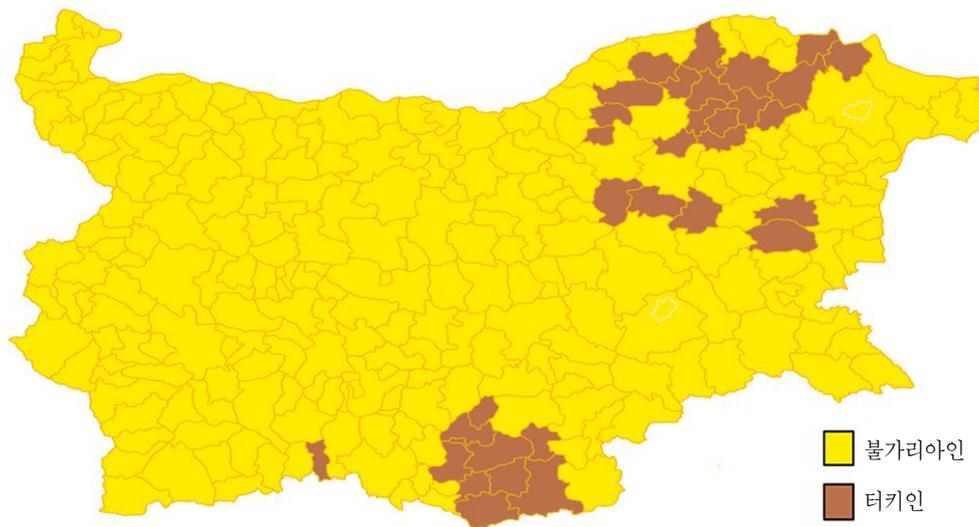
자료: Mark & Merit(2008)에서 재인용.

3) (<http://worldpopulationreview.com/countries/bulgaria-population/>).

4) 1986년(당시 900만 명)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으로 높은 사망률과 낮은 출생률 그리고 경제 불황에 따른 다른 유럽국가로의 이민으로 확인됨. 더 자세한 사항은 (<http://countrymeters.info/en/Bulgaria>) 참조.

인종구성을 살펴보면 불가리아인이 76.9%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터키 8%, 집시 4.4%, 러시아인·아르메니아인·루마니아인 0.7% 그리고 이외 알려지지 않은 소수민족이 약 10%를 차지한다. 모든 민족이 공용어인 불가리아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터키어, 러시아어, 영어 등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14세기 말 오스만 제국 점령 후 발칸지역으로 유입된 터키인의 후손들이 현재 남쪽 커르잘리 (Kardzhali) 주와 북동쪽에 위치한 슈멘(Shumen) 주, 실리스트라(Silistra) 주, 라즈그라드(Razgrad) 주에 거주하며 터키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불가리아 내 주요 민족 분포도



자료: Wikimedia Commons([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ulgaria\\_ethnic\\_map.pn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ulgaria_ethnic_map.png))에서 재인용.

## 2.2. 정치 · 경제 동향

14세기말부터 오스만 제국에 의해 약 5세기 동안 통치를 받아온 불가리아는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며 1878년 독립하게 된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전쟁에서 모두 독일 편에 서면서 패전국이 되고, 1944년에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서 독점적 공산당 통치가 시작된다.

불가리아 첫 번째 공산당 서기관인 게오르기 디미트로프(Georgi Dimitrov)와 그 뒤를 이은 토도르 지브코프(Todor Zhivkov)는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소련 산업화 모델을 채택하며 전략적 중공업육성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농업은 한동안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 배제되고 그 경쟁력 또한 약화된다. 1980년대 말 계획경제의 비효율성과 비생산성, 그리고 편중된 중공업육성정책 등이 초래한 경제문제가 드러나며 지브코프의 영향력은 약화되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함께 약 40년간의 공산정권 통치는 마침표를 찍게 된다. 불가리아 민주화는 야당정치기구인 민주세력연맹(Union of Democratic Forces, 이하 UDF로 약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기존에 독점적 여당이었던 불가리아 공산당은 불가리아 사회당(Bulgaria Socialist Party, 이하 BSP로 약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내부 변혁을 모색한다.

1991년 7월 불가리아는 신헌법을 통해 의회민주주의(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혼합된 의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국명을 불가리아 공화국으로 개칭한다. 또한 가격 및 무역 자유화, 변동환율체제 도입 등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개혁에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1990년과 1994년 사이 BSP와 UDF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세 차례의 선거와 네 번의 정권교체로 인해 불안정한 정치체계가 지속되면서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위한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새로운 법안 통과는 지연되고, 주요 경제개혁 의제들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양당에 의해 상당부분 타협이 이루어졌으며, 인플레이션 및 예산적자의 증가로 불가리아 경제는 지속적으로 고전을 면치 못한다.

표 1 불가리아 주요 경제지표(1991-1999)

단위: %

구 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실질 GDP 성장률	-8.4	-7.3	-1.3	1.8	2.9	-10.1	-6.9	3.5	2.4
물가상승률	473.7	79.5	64.0	122.0	33.0	311.0	579.0	1.0	7.0
실업률	10.5	15.0	16.4	12.9	10.8	12.5	13.6	12.2	17.0
재정수지 (GDP 대비)	n/a	-7.0	-11.0	-5.8	-5.7	-11.0	-2.7	-2.0	-0.9

자료: OECD(2000), EC(2000).

1997년 세계금융위기와 공기업의 부채 증가 및 붕괴 등으로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7%까지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579%까지 증가하면서 불가리아 경제는 위기를 맞게 된다. 1997년 UDF를 중심으로 출범한 정부는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를 설립하고 고정환율제 도입을 통해 1998년에는 인플레이션을 1%까지 떨어뜨리며 위기에 직면한 불가리아 경제를 안정화시키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안정적인 시장경제체제 운영을 위한 공공행정 개혁과 EU가입 준비 등과 같은 주요 의제들은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되고, 특히 부정부패와 높은 실업률 등으로 인해 UDF가 국민의 지지를

있게 됨에 따라, 2001년 실시된 총선에서는 공산정권 붕괴와 함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前국왕 시메온2세가 이끄는 국민운동당(Simeon II National Movement, 이하 SNM으로 약칭)이 집권당이 된다.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직에 선출된 시메온2세는 BSP 출신 게오르기 파르바노프(Georgi Parvanov) 대통령과 EU 가입을 위한 경제개혁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재정정책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EU 가입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4년부터 불가리아 경제는 재정수지 회복과 함께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또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며, 2005년 BSP 중심으로 수립된 신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받아 EU 가입준비와 함께 의료 및 연금혜택 확대, 고용 촉진 등 사회적분야 활성화 정책을 실시한다.

표 2 불가리아 주요 경제지표(2000-2010)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질 GDP 성장률	5.4	4.1	4.8	4.3	6.6	6.2	6.5	6.4	6.3	-5.5	0.5
물가상승률	11.3	4.8	3.8	5.6	4.0	6.5	7.3	8.4	12.3	2.8	2.4
실업률	16.4	19.2	17.8	13.6	12.2	10.7	9.1	6.9	6.3	9.1	9.2
재정수지 (GDP 대비)	-0.5	0.2	-0.8	-0.1	1.8	2.3	3.2	3.3	2.9	-0.9	-4.0

자료: EC(2000), KOTRA(2005, 2012), IMF(2007), Reinier(2012).

이와 같이 불가리아는 여러 차례의 집권당 변화와 연합내각 구성 등 비교적 불안정한 정치상황에도 불구하고, EU 가입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2007년 1월 1일 루마니아와 함께 EU에 공식 가입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법인세율을 유럽 최저치(10%)까지 낮춤으로써 대외투자를 유치하고, 낙후된 사회인프라시설 개선 및 확충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모색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간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불가리아 경제를 다시 한 번 주춤하게 만든다. GDP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 성장률로 하락하고, 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증가했다. 특히 2009년 사회당 정부의 부정부패와 부절절한 EU자금 운용으로 인해 사회 인프라 건설 및 농업분야에 대한 EU보조금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불가리아 경제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된다.

2009년 실시된 총선 결과는 이러한 기존 집권당의 부패와 무능력에 실망한 민심을 잘 보여준다. 3년차 신생정당인 유럽발전시민당(Citizens for European Development of

Bulgaria, 이하 GERB로 약칭)이 240석 중 그 과반수에 가까운 116석을 차지하게 됐고, 기존 집권당인 BSP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석을 차지하는데 그친다. GERB의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ov)를 중심으로 출범한 신규내각은 EU 자금지원 재개와 강력한 긴축 및 균형재정정책을 통해 재정수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 되었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과 투명한 행정절차 확립을 위해 전자정부 구축 등을 추진했다.

불가리아는 2010년 집권당인 GERB와 BSP 출신 대통령과의 대립, 2013-14년 총리내각의 교체와 조기총선 실시 등으로 최근까지 불안한 정국을 보이고 있다. 2016년 현재는 GERB가 개혁연합(Reformist Block, RB), 애국전선(Patriotic Front, PF), 부흥대안(Alternative for Bulgarian Revival, ABC) 등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EU 기금 수혜 확대를 위한 투명성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사법제도 개혁 및 전자정부 구축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2.3. 경제 연망

최근 불가리아는 경제전반에 걸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불가리아의 GDP 성장률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5.5%까지 하락하였다가 2011년부터 다시 플러스 성장률을 회복하여 최근에는 다시 조금씩 상향세를 보이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sup>5)</sup>에 따르면, 불가리아 GDP 성장률은 2016년에는 2.0% 그리고 2017년에는 2.4%로 2015년의 3% 보다는 조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가상승률의 경우 세계경제침체와 국제유가의 하락, 그리고 국내수요의 감소 등으로 인해 2013년부터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양상을 띠고 있다. 2016년 4월 불가리아 통계청(National Statistic Institute, NSI)에 따르면 불가리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로 이는 EU 통계청(Eurostat)이 발표한 유로존 4월 물가상승률 -0.2%보다 낮은 수치이다.

표 3 GDP 성장률 및 물가상승률(2011-2015)

구 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GDP 성장률	1.6	0.2	1.3	1.6	3.0
소비자물가상승률	4.2	3.0	0.9	-1.4	-1.1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2016), 불가리아 통계청(2016).

5) 2016년 5월 발표

불가리아의 실업률은 2014년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가리아 통계청(2016년 5월)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말 불가리아의 실업률은 8.6%, 실업자는 28만 명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 약 2%, 19.9% 감소한 수치이다. 또한 IMF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실업률이 약 7.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고용률(2011년: 62.9% → 2015년: 67.1%)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고용률 및 실업률(2011-2015)

구 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고용률(20-64세 인구 대비)	62.9	63.0	63.5	65.1	67.1
실업률	11.3	12.3	12.9	11.4	9.2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2016), 불가리아 통계청(2016).

빈곤문제 또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1년 불가리아의 빈곤위험률은 49.1%로 불가리아 인구의 약 절반이 빈곤의 위험에 속해있었으나, 2014년에는 그 수치가 약 9% 감소한 40.1%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는 여전히 EU 국가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하며, 같은 해 인구의 약 21.8%가 빈곤선(BGN 323.75, EUR 165)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높은 빈곤률은 불가리아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표 5 빈곤위험률<sup>6)</sup>(또는 사회적배재율)(2011-2014)

구 분	단위: %			
	2011	2012	2013	2014
빈곤위험률(전체인구대비)	49.1	49.3	48.0	40.1

자료: EC(2016).

불가리아의 경상수지는 2014년도에 하락한 이후 2015년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2%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유럽집행위원회는 예측하고 있다. 무역수지적자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순수출의 빠른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수지의 경우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6) 가계소득이 중위 가치분소득 60% 미만인 개인의 비중을 나타냄.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Glossary:At-risk-of-poverty\\_rate](http://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Glossary:At-risk-of-poverty_rate))

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4년 -5.4%까지 하락하며 더욱 악화되었으나, 유럽집행위원회는 2015년 재정수지 회복세에 힘입어 2016년 재정적자가 보다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6 경상수지, 무역수지 및 재정수지 (2011-2015)

단위: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상수지(GDP 대비)	0.3	-0.9	1.3	0.9	1.4
무역수지(GDP 대비)	-6.6	-9.6	-7.0	-6.5	-4.3
재정수지(GDP 대비)	-2.0	-0.3	-0.4	-5.4	-2.1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2016), 불가리아 통계청(2016).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5년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하며 외국인 투자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불가리아 FDI가 EU 자금이 집중 유입 될 하수 및 쓰레기처리, 지역 및 농어촌개발 분야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7)</sup>

표 7 외국인직접투자(FDI)(2011-2015)

단위: 백만 유로,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외국인 직접투자(FDI)	1,476.3	1,320.99	1,383.7	1,339.1	1,593.1
외국인 직접투자(FDI) (GDP 대비)	3.6	3.2	3.3	3.1	3.6

자료: 불가리아 중앙은행(2016), 불가리아 통계청(2016).

최근 불가리아 경제현황을 종합해보면, 불가리아 경제의 전반적인 상승세는 수출 증가와 세계유가 하락, 그리고 EU기금 지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내수시장 활성화,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빈곤율과 재정건전성 확보, 그리고 부정부패 등은 불가리아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과제로 남아있다.

7) 불가리아는 2013년 EU 의회에서 승인된 EU 기금(2014-2020)을 바탕으로 도로·인프라 및 지역개발, 환경폐기물, 농어촌 분야 등에 투자할 계획임(KOTRA 국가정보,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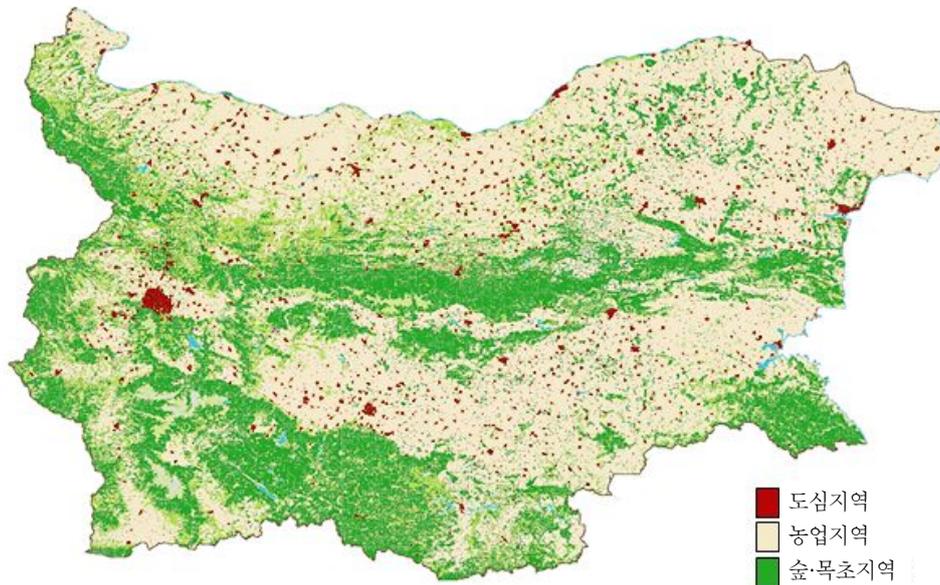
### 3. 불가리아의 농업

#### 3.1. 농업환경(기후 및 토양)

우리나라(북위33°~42°)와 비슷한 위도에 위치한 불가리아(북위41°~44°)는 사계절이 뚜렷하며, 북쪽은 대륙성기후와 동남쪽은 지중해성기후의 영향을 받는다. 연평균 기온은 약 10°C 이지만 겨울에는 -2°C에서 여름에는 25°C로 계절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연평균 강수량은 약 650mm로 주로 여름에 집중된다.

불가리아는 여느 동부유럽국가들과 같이 비교적 잘 발달한 천연의 자연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비옥한 토양은 불가리아 농업발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국가 면적의 약 50%이상이 농업지역으로 전 지역에 걸쳐 농업이 고루 발달해 있다. 또한 약 30% 이상이 숲과 목초지로 구성되어있어 전통적으로 낙농업이 발달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도 석탄, 납, 아연, 구리 등 광물자원 또한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4 불가리아 토지 피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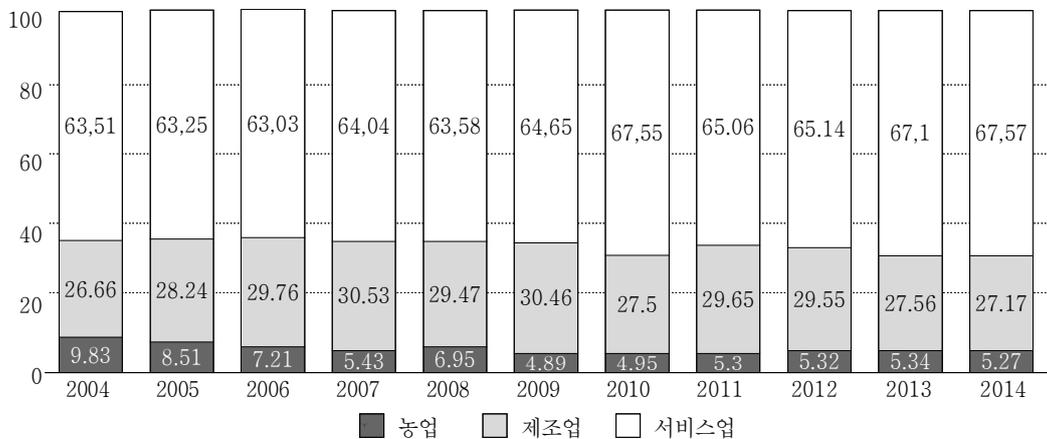


자료: Bulgar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http://bsdi.asde-bg.org/lccs\\_en.php](http://bsdi.asde-bg.org/lccs_en.php))에서 재인용.

### 3.2. 농업연망

농업은 불가리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사회주의 정권 시기 중공업 육성정책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식량생산을 목표로 농업생산은 매년 2%씩 성장하였으며, 초과 생산분은 주변국가로 수출하여 무역수지 개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사회주의 정권 붕괴와 함께 농촌인구의 감소, 낙후된 농업기술, 서비스 산업의 증가 등으로 불가리아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199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7%를 차지하던 농업은 2014년 현재 5%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동시에 농업부문 고용비율 또한 18%에서 2015년 7%<sup>8)</sup>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농업생산에 최적화된 자연환경과 전체 면적의 약 50%이상 (620만 ha/1,000만 ha) 차지하는 농업 생산면적은 불가리아 농업 발전의 그 잠재성을 보여준다.

그림 5 국내총생산(GDP) 대비 산업별 비중(2004-2013)



자료: (<http://www.statista.com/statistics/373492/share-of-economic-sectors-in-the-gdp-in-bulgaria/>).

최근 불가리아 농축산물 총생산액을 살펴보면 2015년에 35억 3,000유로를 기록하며 2014년 대비 약 10% 감소하였다. 총생산액에서 곡물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2%로 이는 축산물 보다 약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특히, 곡물생산액 중 밀, 옥수수, 유지종자 및 견과류의 생산액은 전체 평균 71%(2013-15년)를 차지하며 그 주를 이루고 있다.

8) 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S)의 The World FactBook 참조.

표 8 농축산물 총생산액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백만 유로		백만 유로	전체 비율(%)
곡물 생산액	2,681.64	2,753.62	2,535.57	71.80
□ 곡물	1,258.58	1,330.85	1,158.61	32.81
○ 밀	753.49	779.24	664.75	18.83
○ 호밀	4.03	3.21	3.21	0.09
○ 보리	116.03	115.54	105.05	2.98
○ 오토밀과 여름 혼합곡물	5.12	4.67	3.93	0.11
○ 옥수수	355.27	397.56	344.24	9.75
○ 쌀	15.44	19.96	24.44	0.69
○ 기타 곡물	9.20	10.67	11.99	0.34
□ 산업작물	867.83	966.43	893.25	25.30
○ 유지종자 및 견과류	675.67	784.60	708.65	20.07
○ 단백질 작물	4.51	4.60	19.22	0.54
○ 담배원료	135.42	138.04	102.80	2.91
○ 사탕무	-	-	-	-
○ 기타 산업작물	52.23	39.19	62.58	1.77
□ 사료작물	188.58	129.44	127.98	3.62
□ 채소 및 원예작물	138.99	142.57	142.57	4.04
□ 감자	62.21	24.11	38.87	1.10
□ 과일	156.36	126.49	162.62	4.61
□ 와인	-	-	-	-
□ 올리브유	-	-	-	-
□ 기타 곡물제품	9.09	33.74	12.68	0.36
축산물 생산액	1,162.17	1,122.39	995.17	28.2
□ 축산	581.74	566.70	520.66	14.75
○ 쇠고기	121.14	126.55	110.37	3.13
○ 돼지고기	163.03	154.00	139.17	3.94
○ 말고기	0.17	0.14	0.15	0.00
○ 양과 염소	113.57	106.97	112.75	3.19
○ 가금류	181.90	173.83	156.51	4.43
○ 기타 동물	1.93	5.16	1.71	0.05
□ 축산물	580.43	555.70	474.51	13.44
○ 우유	443.35	446.10	359.01	10.17
○ 계란	102.40	78.70	82.97	2.35
○ 기타 축산물	34.68	30.90	32.53	0.92
농축산물 총생산액	3,843.81	3,876.01	3,530.74	100.0
총부가가치	1,563	1,589	1,396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6년 4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6년 1월 업데이트).

농업 생산을 위해 투입된 중간재 소비액의 경우,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약 23억 유로 규모를 차지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종자 및 모주, 비료 및 토양 개량제, 그리고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요소 소비액의 두드러진 감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중간재 소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는 사료와 에너지로 2013-15년 전체 평균 각각 25%와 23%를 차지하고 있다.

표 9 농업투입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4/2013	2015/2014
	백만 유로			증감률(%)	
총 중간재 소비액	2,653.72	2,526.79	2,296.39	-4.78	-9.12
종자 및 모주	107.07	82.15	76.81	-23.27	-6.50
에너지	595.56	579.91	562.43	-2.63	-3.01
비료 및 토양 개량제	258.71	213.31	187.11	-17.55	-12.28
식물 보호 제품	139.63	127.04	111.44	-9.02	-12.28
수의 비용	143.37	146.85	128.81	2.43	-12.28
사료	649.52	649.97	578.69	0.07	-10.97
원자재 유지 보수	180.90	185.29	162.53	2.43	-12.28
빌딩 유지 보수	88.71	90.86	79.70	2.42	-12.28
영농 서비스	271.31	261.97	242.70	-3.44	-7.36
기타 상품 및 서비스	218.94	189.44	166.17	-13.47	-12.28
고정자본 소비액	342.71	247.26	256.39	-27.85	3.69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6년 4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6년 1월 업데이트).

불가리아 농업 소득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농업 소득은 2005년에 비해 약 59% 상승하였다. 곡물 및 축산물, 2차 생산 활동(가공, 유통 등)을 합한 총 농업생산액은 약 39억 유로이며, 총 부가가치액은 약 15억 유로이다. 특히 최근 3년 간 총 농업생산액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2차 생산 활동비용의 급격한 감소(2.78억 유로→1.25억 유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10 농업소득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4/2013	2015/2014
	백만 유로			증감률(%)	
농업 생산액	4,393.78	4,302.02	3,899.13	-2.09	-9.37
□ 곡물 생산액	2,681.64	2,753.62	2,535.57	2.68	-7.92
□ 축산물 생산액	1,162.17	1,122.39	995.17	-3.42	-11.33
○ 축산	581.74	566.70	520.66	-2.59	-8.12
○ 축산물	580.43	555.70	474.51	-4.26	-14.61
□ 농업 서비스	271.31	261.97	242.70	-3.44	-7.36
□ 2차 생산 활동	278.66	164.04	125.69	-41.13	-23.38
- 중간재 소비액	2,653.72	2,526.79	2,296.39	-4.78	-9.12
= 총 부가가치액	1,694.36	1,731.56	1,553.87	2.20	-10.26
- 고정자본 소비액	342.71	247.26	256.39	-27.85	3.69
- 세금	4.86	3.65	3.27	-24.90	-10.41
+ 보조금	852.37	820.59	602.62	-3.73	-26.56
= 요소소득	2,199.15	2,301.32	1,897.83	4.65	-17.53
농업 소득(2005=100)	160.7	180.7	158.8	12.45	-12.12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6년 4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6년 1월 업데이트).

농산물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불가리아의 농산물 총 수출액은 37억 유로이고, 수입액은 24억 유로이다. 수출 및 수입 모두에서 원자재 교역 비중이 가장 높으며, 동시에 가장 높은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는 품목이기도 하다. 밀, 해바라기 씨, 옥수수 등이 주요 수출품목에 해당된다.<sup>9)</sup> 농산물 무역액 규모의 경우 EU 국가와의 무역액은 약 44억 유로, 비(非) EU 국가와의 무역액은 약 17억 유로로 EU 국가와의 무역비중이 비 EU 국가와의 무역비중보다 약 2배 이상 높으며, 이는 불가리아에게 있어 EU 시장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2004년과 비교했을 때 수입(76%→63%) 및 수출(75%→73%) 모두 대(對) EU국가 무역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9) KOTRA 국가정보(2014).

표 11 2014 농산물 무역 현황

구분	총 무역액	EU국가와의 무역		비EU국가와의 무역	
	백만 유로	백만 유로	2014/2013 증감률(%)	백만 유로	2014/2013 증감률(%)
□ 수출	3,757.1	2,464.4	3.1	1,292.8	-7.2
○ 원자재	1,996.3	1,354.1	-17.9	642.2	6.3
○ 가공제품	329.7	250.9	11.0	78.9	21.7
○ 조제 식료품	426.0	263.0	2.1	163.0	-5.7
○ 음료식품	36.2	20.60	-24.6	15.6	3.5
○ 비식용제품	546.6	227.50	-1.7	319.1	7.2
○ 기타 제품	422.3	348.30	6.1	74.0	2.2
□ 수입	2,443.4	1,980.7	4.5	462.8	-3.8
○ 원자재	669.1	520.7	-6.1	148.4	-17.8
○ 가공제품	257.5	228.2	-3.4	29.4	5.1
○ 조제 식료품	409.7	358.3	7.1	51.4	4.4
○ 음료식품	140.8	118.2	-3.6	22.6	45.9
○ 비식용제품	304.9	207.3	2.1	97.6	-4.7
○ 기타 제품	661.4	548.0	6.6	113.4	21.1
□ 무역 수지	1,313.7	483.7	-	830.0	-
○ 원자재	1,327.2	833.4	-	493.8	-
○ 가공제품	72.2	22.7	-	49.5	-
○ 조제 식료품	16.3	-95.3	-	111.6	-
○ 음료식품	-104.6	-97.6	-	-7.0	-
○ 비식용제품	241.7	20.2	-	221.5	-
○ 기타 제품	-239.1	-199.7	-	-39.4	-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6년 4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6년 1월 업데이트).

#### 4. 농업정책

불가리아의 농업은 1944년 공산화 이전까지 소규모 개인농지를 중심으로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 식량생산이 주를 이루었다. 1880년 시행된 대규모 개인 농지 소유를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1930년대까지 10ha이상의 농지는 전체 농지의 약 11%에 불과했으며, 평균 5ha농지가 대부분이었다.

불가리아의 농업정책은 1944년 공산화와 함께 시작된 토지개혁으로 인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대규모 개인 농지는 몰수되어 국유화되었으며, 이 일부는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 농가에 분배되었다. 동시에 농산물 공동생산을 위한 농지 집단화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농부들은 개인 농지와 가축을 노동협동조합의 지분으로 내놓아야만 했다. 이러한 토지개혁을 바탕으로 불가리아 농업정책은 중앙계획경제체제 하에 도시인구를 위한 식량생산과 가공산업 육성,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에 대한 농산물 수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안정적인 곡식 생산과 다양한 농산물 생산에 주력할 수 있었다. 특히 동구권 경제협력체인 경제상호원조회의(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CMEA) 지원 하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는 불가리아가 헝가리와 함께 중동부유럽의 농산물 생산과 수출의 핵심 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해주었다.

1989년 공산정권 붕괴와 함께 체제전환기에 들어서며, 불가리아의 주요 정책목표는 농업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걸친 민간부문 개발 및 시장원리 도입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 초기 시장경제체제 하에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농업정책이 시행되었다. 우선 계획경제에 의해 결정되던 농산물 가격 및 무역 자유화를 실시한다. 동시에 정부는 농업생산자보호법(1995)을 통해 농산물 생산 및 무역 보조금을 지급하고, 주요 농산물인 밀, 옥수수, 감자, 유제품 등에 최저가격제를 적용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국가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집단화 되었던 농지를 해체하여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재분배하는 등 농지사유화를 시행한다(OECD 2000).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제전환 초기에는 불안정한 정치·경제상황으로 인해 일관된 정책시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특히 급격히 이루어진 농지사유화로 인해 발생한 농지분절화 현상은 농업 발전에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게 된다.

이후 농업정책은 1997년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며 세계금융기구들과 합의한 가격규제 완화, 무역자유화,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바탕으로 재수립되며, 이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수출 지향적 농업을 위한 경제 환경 조성
- 농촌지역 및 농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활 및 업무 환경 개선
- EU 가입 준비

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계획이 마련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1999년에 수립된 국가경제발전계획(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Plan, 이하 NEDP로

---

약칭)과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가지역개발계획(National Regional Development Plan, 이하 NRDP로 약칭) 및 국가농업농촌개발계획(National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Plan, 이하 NARDP으로 약칭)이다. NEDP는 2007년 EU 가입을 목표로, 전반적인 경제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경제체제 확립과 EU 기준에 맞는 제도적 체계구축방안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업부문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NRDP와 NARDP는 농업 및 농촌발전을 위한 특별 가입 프로그램(Special Accession Programme for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이하 SAPARD으로 약칭)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SAPARD는 중동부 유럽 EU 가입 후보국을 대상으로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CAP으로 약칭) 도입 준비를 위해 실시된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불가리아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EU로부터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약 7년 동안 매년 5,200만 유로를 지원을 받았다. 이와 연계하여 실시된 NRDP는 주로 지역 균형 발전을, NARDP는 전반적인 농업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낙후된 농업기술 개선 및 인프라 구축과 전략적 농업투자활성화 정책 등 EU 가입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농업정책은 NARDP를 통해 이루어졌다. 위 모든 프로그램은 EU 가입 준비를 위해 1999년 제정되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노력 끝에 불가리아는 2007년 루마니아와 함께 27번째 EU 회원국이 되었다.

불가리아는 EU 가입과 함께 CAP<sup>10)</sup>을 통해 농업보조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 CAP은 기본적으로 EU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크게 두 축<sup>11)</s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축(First Pillar)<sup>12)</sup>에는 직접지불금과 시장관리정책 보조금이 그리고 제2축(Second Pillar)에는 농촌지역개발정책<sup>13)</sup>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다. 불가리아는 2007-2013기간 동안 두 부문(제1, 2축) 모두 합쳐 CAP을 통해 약 40억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07년부터 지원받은 농촌지역개발 자금을 통해 약 56만 농가가 기초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혜택을 제공받았으며, 약 5,400명의 젊은 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게 되었다. 2013년에는 직접지불금으로 약

---

10) EU 내의 교역장벽을 제거하고 역외 농산물에 대해 EU 농산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함(농림수산식품부, 2008).

11) 2000년에 실시된 『Agenda 2000』 개혁을 통해 기존의 농업 보조금(직접지불금 및 시장관리정책 보조금)과 함께 ‘농촌지역개발’을 CAP의 주요 한 축으로 설정함에 따라 현재와 같이 두 축으로 나뉘었다(김윤성 2013).

12) CAP 시행 초기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농산물 가격지지 및 수출보조금 지급 등 ‘시장관리정책’을 시행함. 이는 농산물 과잉공급 및 과도한 예산 지출 등의 문제로 이어졌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1992년 EU 농산물 시장개입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농업인에 대한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직접지불금’ 제도를 도입함(김정기 2014).

13) 농업경쟁력 제고(투자, 현대화 등), 농촌환경 개선, 농촌지역 경제활성화 등이 주요 정책목표(이상만 2012).

5억 유로, 시장관리를 위해 4,000만 유로, 그리고 농촌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약 4억 유로를 지원받았다(EC 2014).

표 12 불가리아 공동농업정책(CAP)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백만 유로, %

구분	2014년 지출액	2008-2013 비중
직접 지불	579	41.8
시장관리	23	3.4
농촌지역개발	0*	54.8
합계	602	100

주: \*2007-2013기간 보조금 지원이 만료되고 2014-2020년 보조금 지원 체계로 변경되며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보조금이 0에 가까운 매우 낮은 수준임.

자료: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Commission, 2016년 4월 자료에서 재인용(Eurostat, 2016년 1월 업데이트).

불가리아는 2014년 총 6억 유로의 보조금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74억 유로에 해당하는 2차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불가리아는 이 지원금을 바탕으로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생태계 보존, 그리고 빈곤퇴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계획하고 있다.

## 5. 맺음말

불가리아 농업은 공산정권 시기 편중된 중공업육성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토지 집단화를 바탕으로 한 농산물 공동생산과 경제상호원조회의(CMEA)의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농업발전을 이어왔다. 하지만 1987년 공산정권 붕괴 이후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시기 드러난 낙후된 농업기술, 토지개혁에 따른 농지 분절화 문제, 농업인구의 고령화 등은 불가리아 농업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말 EU가입 준비에 맞춰 실시한 국가지역개발계획(NRDP)과 국가농업농촌개발계획(NARDP)을 통해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EU 기준에 맞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7년 EU 가입을 통해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일환으로 EU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1차 지원금(2007-2013년)은 농가 기초생활향상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2014-2020년의 기간 동안 받게 될 2차 지원금은 전반적인 농촌생활수준 개선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국토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최적화된 자연환경으로 구성된 불가리아는 EU 보조금을 바탕으로 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2015년은 한-불가리아 수교 25주년의 해로 양국 정상은 농업, ICT, 국방 등 다양한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에 합의하면서 양국의 농업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과거 추진하고자 했던 양국의 농업기술협력이 재개될 뿐만 아니라, 한-불가리아 농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세계최대소비시장 중 하나인 EU 시장 진출의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윤성. 2013. 차기 EU 공동농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13 NHERI 리포트 제 229호」. 농협경제연구소.
- 김정기. 2014. 2013 EU 공동농업정책 개혁의 특징 및 시사점 . 「EU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EU 연구소.
- 농림수산식품부. 2008. 「EU 농식품정책 동향 및 분석」. 농림수산식품부.
- 소피아 무역관. 2005, 2012, 2015. 「불가리아」. KOTRA 국가정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이상만. 2012. EU 공동농업정책 개혁동향 .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용호. 2015. 루마니아 현황과 시사점 . 「세계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수출입은행. 2015. 「2016년 세계국가편람」. 한국수출입은행.
- European Commission. 2000. Regular Report on Bulgaria's Progress towards Accession.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 2016. Country Report Bulgaria 2016.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 2016. Member States Factsheets: Bulgaria.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 2016. Member States Factsheets: European Union. European Commission.
- European Commission. 2014. Bulgaria Common Agricultural Policy. European Commission.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4. Bulgaria : Fourth Review Under the Stand-By Arrangement, Requests for Waiver of Applicability of Performance Criteria and Waiver of Nonobservance of Performance Criterion, and Request for Extension of the Arrangement.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 Mark. R. and Merit. M. 2008. Assessing the Impact of Rural Development Policies. Centre for Ecological Engineering (Estonia).
- OECD. 2010.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Bulgaria. OECD.
- Reinier Meijer. 2012. Country Report Bulgaria. Economic Research Department, Rabobank.

### 참고사이트

불가리아 중앙은행 ([http://www.bnb.bg/?toLang=\\_EN](http://www.bnb.bg/?toLang=_EN))

불가리아 통계청 (<http://www.nsi.bg/en>)

브래태니카 온라인([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0b1649b](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10b1649b)).

주 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http://bgr.mofa.go.kr/korean/eu/bgr/policy/condition/index.jsp>).

Bulgar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http://bsdi.asde-bg.org/lccs\\_en.php](http://bsdi.asde-bg.org/lccs_en.php)).

Central Intelligence Agency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bu.html>).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data/database>)

STATISTA(<http://www.statista.com/statistics/373492/share-of-economic-sectors-in-the-gdp-in-bulgaria/>).

IMF Data (<https://www.imf.org/en/Data>)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ulgaria\\_ethnic\\_map.png](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ulgaria_ethnic_map.png)).